

장염

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식중독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성 감염과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이 흔하며, 크론씨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도 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복통과 설사이며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복통은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는 묵직한 통증이 가장 흔하며, 묵직한 통증으로 시작하여 뒤틀리는 듯이 심하게 아픈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설사는 적게는 하루에 2~3회에서, 많게는 20여 회가 넘는 경우까지 그 빈도가 다양하다. 대장이 감염된 경우 변에 코와 같은 점액이 많이 섞여 나오고, 소장이 감염된 경우에는 점액이 별로 섞여 나오지 않는다.

주로 6개월~24개월 사이의 아이에게 잘 발생하며, 춥고 건조한 늦가을부터 겨울철(10월~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정의

장염은 식중독 또는 장점막의 세균 감염 등에 의해 장점막이 손상되는 병을 말한다. 장염은 급성과 만성 이 있다.

1. 급성 장염

급성 장염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되며 감염성 장염에는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부도오구균, 캄필로박터 장염이 있으며,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파라티푸스는 법정 전염병이다.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부도오구균은 정부지정의 식중독이다.

비감염성 장염에는 항생물질에 의한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알레르기성 장염 등이 있다. 법정 전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전염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며 전신상태를 파악하여, 탈수, 쇼크 등에 대처한다.

2. 만성 장염

만성장염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장결핵 등이 있다.

■ 원인

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식중독과 같은 각종 바이러스성 감염과 세균성 감염 등으로 인한 감염성 장염이 흔하여, 크론씨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도 있다.

■ 증상

주 증상은 복통과 설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없는 복직한 통증이 가장 흔하며 이러한 복직한 통증으로 시작하여 뒤틀리는 듯이 심하게 아픈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설사는 적게는 2~3회 정도에서 많게는 20여회가 넘는 경우까지 그 빈도가 다양하다. 소장이 감염된 경우에는 변에 코와 같은 점액이 별로 섞여 나오지 않는 반면 대장이 감염된 경우 점액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만성장염은 급성장염에 비하여 증상은 훨씬 가벼우나 증상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는 경우이다. 윗배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눌리는 듯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 진단

대변에서 세균 또는 원충을 검사한다. 비감염성 장염 중 위막성 장염은 내시경으로 회백색, 황색의 위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선 장염에는 부종, 출혈, 궤양 등이 나타난다.

■ 예방 및 치료

1. 치료

대부분 3~4일 정도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폐에 따라서는 만성 장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으므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안정 및 수액보충에 의한 탈수의 치료 등이 행해지고, 감염성인 경우에는 각각의 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위막성 장염이면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여하며 방사선 장염에는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투여한다. 복통이 심한 경우 진경제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1~2일 정도 시중의 이온음료를 마시는 정도로 안정을 취하고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증상에 따라 유동식에서 반유동식, 연식, 경식으로 점차 교체해 나간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고 음식을 잘 씹어 먹도록 한다. 설사가 주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극성이 적은 식사를 권한다. 소화되지 않는 지방, 다량의 지방섭취는 피한다. 단백질이 많으면 부패를 일으켜 가스나 대변의 악취가 심하게 난다.

2. 예방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퍼지므로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은 끓여 먹는다. ☺

〈출처 : MEDTV21.NET〉